



요한 케르벡(Johann Koerbecke, 활동시기 1453-1491), <주님 승천>, 1470년 경, 유채, 92,5×64,8cm, 내셔널갤러리, 워싱턴, 미국

성화해설

이 작품의 상단에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과 구약 시대의 예언자와 왕들이 묘사되어 있다. 하단에는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와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이 표현되어 있다. 바위 위에 새겨진 예수님의 발자국은 그 분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려진 것이다.

입당송 사도 1,11 참조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시편 47(46),2-3,6-7,8-9(◎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리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

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 1,17-23 <또는 4,1-13 또는 4,1-7,11-13>

복음환호송 마태 28,19ㄱ,20ㄴ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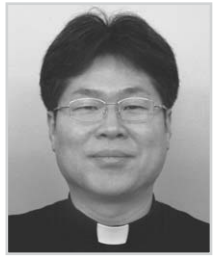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르 16,15-20

영성체송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추억 만들기!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휴 일에 흘러간 추억을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와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찾았는데 살던 집과 동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한두 군데 변하지 않은 곳이 있어 예전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예전에 다니던 성당 근처를 돌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그곳을 두고 오기가 너무 아쉽고 마지막이란 생각에 시장 골목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추억을 그릴 수 있는 곳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만 그런대로 기억할 수 있을 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느낌과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며,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광스런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보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외롭고 두려웠기에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흰옷을 입은 사람의 등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행적을 알려 줍니다. “제자들

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후에 주님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보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마음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하신 주님을 닮아갔으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추억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추억 만들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 일까요? 우선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미사를 통해서 그분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로운 계명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신앙인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합시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그 여자의 사랑



이금주 벨라뎃다 | 방송작가

“아빠는요?” “조용히 해. 주무셔.” 인상을 쓰며 책 가방을 들고 나온 아들은 단한안방 문과 현관에 놓인 아빠 구두를 번갈아 본 후 식탁 앞에 앉습니다. “두시에 들어오셨어. 어서 먹어.” 나직이 부연하는 엄마 말에 중3 아들은 손가락을 듭니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밥을 먹는 아들을 훑쳐보며 여자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밤 한시까지 아빠를 기다리며 분개하는 아들을 간신히 달래 먼저 자게 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대신 연락 없이 안 들어오기가 보통인 아빠에게 아들은 폭발 직전입니다. 화가 나면 살림을 부순 후 새로 바꾸는 남편 성미를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은 바보같이 암말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며 차라리 엄마가 집을 나가라는 처방을 했습니다. 동생도 자기가 잘 챙길 테니 아빠가 빌 때까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답니다. 여자는 아빠가 돈 버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야 한다며 간신히 달랬습니다. 행여 자기 대신 아들이 한바탕하고 집을 나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이제는 남편에 아들 비위까지 썩으로 맞추느라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파이팅!” 아들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시에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섭니다. 아들은 양복 차림인 아빠를 한번 보고 당황한 엄마를 봅니다. 자기 발 옆에 놓인 아빠 구두를 다시 본 후 그대로 아빠를

밀치고 뛰쳐나갑니다. “저 녀석 왜 저러는 거야?” 남편은 따라 그 구두를 한번 보고 여자를 봅니다. “내 말 안 들려?” 여자는 참담한 얼굴 그대로 고개를 숙입니다.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 굳은 듯 서 있습니다. 여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친구 남편이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후로 전화 없이 늦거나 안 들어오는 일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평소 아들과 같은 처방을 하며 대놓고 답답해하던 내가 말문을 담은 건 친구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걸 알고서입니다.

“친엄마도 못 참고 나갔어. 내가 또 나가 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 저런 아빠에게 두고, 다른 여자가 와도 못 참을 건데.” 바보같이 산 덕에 잘 키워 시집장가도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남편도 살림 부수는 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평안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막막하고 때면 힘들고 가끔씩 행복한 우리는 사랑이 희망입니다. 내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하느님처럼 나도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거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1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은 비도덕적이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정자와 난자에 의지하는 것은 혼인의 일치성과 배우자에 대한 충실성에 위배되며, 혼인의 테두리 안에서 또 그로 말미암아 잉태되기를 원하는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인 헌장 27항>.

“같은 이유로, 혼인의 유대가 부재하다는 점에서...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거하는 사람들의 인공 수정도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의료인 헌장 28항>.

새 생명의 탄생은 혼인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과 충실성의 열매로서 이루어질 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합니다. 또한 아이는 자기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임신되고 자라나 태어나고 그 부부에 의해 성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부부가 제3자로부터 받은 생식세포(난자나 정자)를 접합시킴으로써 수태시키는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은, 배우자간 체외수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부부의 신의와 일치 파괴, 유전자 부모와 출생시킨 부모 간의 차이로 인한 아이 정체성의 혼란, 양육과 교육의 책임 문제, 난자 정자에 대한 우생학적 선택과 상업화 등 많은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생명의 선물 제1부 2항 참조).

존중과 대화와 우정의 문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디지털 통신
환경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과 대화와
우정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가오는 홍보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올해 담화에서 이른바 디지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기술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는 데에 사용될 때 지니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에 관해 젊은이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생겨나면서 언어와 영상을 세계 어디에나 거의 즉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의사소통과 상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의 근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러한 욕구는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는 새로운 디지털 통신 환경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과 대화와 우정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뉴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보급에 종사하는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가상공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지털 광장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전통과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한 만남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의 깊고 정중하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한편, 솔직하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정이라는 개념은 디지털 사회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대와 평화와 정의, 인권과 선을 증진하고자 애쓰는 디지털 네트워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디지털 네트워크가 모든 이에게 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이미 소외된 사람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도록 하는 새로운 통신 수단을 접할 수 없다면, 이는 인류의 미래에 비극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기술의 문화에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되는 가치들을 이끌어 들이도록 권고합니다. 특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해 본능적 친밀감을 지닌 젊은이들은 ‘디지털 대륙’을 복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일치와 존중, 친교의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신앙을 선포하는 이가 되십시오!

소식

오늘(5월24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제43차 '홍보주일'입니다(홍보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5월31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자 '청소년 주일'이며 '생명의 날'입니다(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제4회 '교육 주간' 담화 발표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제4회 교육 주간(5월25일~31일)을 맞이하여, '빈곤 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 모두가 올바른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담화문 전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참조).

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교구별 생태 복음화 교육'

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교구별 생태 복음화 교육'이 주최측 사정으로 인하여 5월25일(월)에서 10월30일(금)로 변경되었습니다. / 문의: 460-7622

평화화랑 축성식

평화화랑이 가톨릭회관 1층으로 확대 이전하여 축성식을 갖습니다.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5월27일(수) 오후 4시, 평화화랑에서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5월25일 박일규 안드레아 신부(82세) 1979년, 용산
- 5월27일 이선표 요셉 신부(36세) 1984년, 용인
- 5월27일 이봉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1세) 2005년, 용인
- 5월29일 김창석 타대오 신부(67세) 1993년, 용인

'나주 율리아 관련 집회 불허'와 관련한 공문 발송

광주대교구(교구장 최창무 대주교)가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집회 등에 대해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각 교구장 주교들에게 보내어 "최근 나주의 율리아 측에서 각 교구를 전전하며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나 신자의 이름으로 장소를 대여해 집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지난해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교구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무악재성당 사무장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된 분 / 면접은 개별 통보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방화관리자격증(필수) / 제출서류 반환 안 됨
- 문의: 739-4418 / 6월3일(수)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평화화랑 제1, 2전시실: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초대전

평화화랑은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초대전을 5월27일(수)~6월2일(화)에 제1, 2전시실에서 전시합니다.
· 전시 및 대관 문의: 727-2336 평화화랑

교구청 알림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 주제: 한국 교회의 선교사인 103위 성인
- 때, 곳: 6월2일(화) 14시-17시, 명동성당 문화관 포스트홀 / 727-2065 선교전례사목부
- 주최: 서울대교구 사목국, 평화방송(회비 없음)

경찰사목위원회 봉사자 모집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교리교육 봉사자	전·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건강한 55세 이하 교우)
유치장사목 봉사자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건강한 60세 이하 교우)

2009년 6월 알코올 치료피정

- 대상: 알코올 의존자 및 그 가족
- 때, 곳: 6월13일(토)-14일(일) 1박2일, 한국순교복자 피정의 집 / 문의: 364-1811, 2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전화접수 및 입금)

향심기도(월피정)

-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상지 피정의 집
- 대상: 누구나 / 주최: 사목국 향심기도회
- 문의: 010-8674-1105(www.hyangsim.com)

일반인	6월1일(월) 9시30분-16시	회비:
직장인	6월7일(일) 9시30분-16시	1만5천원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5월29일(금) 오전 10시30분
- 곳: 명동성당 내 소성당 / 문의: 727-2414, 5

2009년 풍년기원미사 및 손모내기 행사

- 내용: 풍년기원미사, 우렁이농기, 손모내기, 떡메치기, 대동놀이, 친교마당 등
- 때, 곳: 6월6일(토) 8시, 원주교구 대안리분회(가톨릭회관 후문 출발) / 문의: 727-2272, 2275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회비: 어른 1만5천원, 6세이상~청소년 1만원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예수회	6. 6. 16시	예수회 본부	010-8728-1803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5. 30. 16시-31. 17시	정릉본원(성소심화피정)	016-332-2885

알림

모임

향심기도와 함께하는 렉시오비디나 피정

· 때, 곳: 6월5일(금)~7일(일), 씨튼 영성의 집(주최)
· 문의: 041)733-2992~4(www.setoncent.or.kr)

영성2일 대피정

· 강사: 김정수 신부(내적 영성 순화치유) / 867-7900
· 때, 곳: 6월20일(토)~21일(일) 9시~17시, 성령쇄신
봉사회(주최)·전철 2호선 신림역 버스환승 5535번

제3지구 예수성심성월 1일 대피정

· 강사: 차동엽 신부(통하는 기도) / 회비: 2천원
· 때: 6월1일(월)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곳: 불광동성당(주최) / 문의: 010-3080-4413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 기도

· 때, 곳: 매주(화) 22시30분~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강론은 유명강사가 하며 매주 바뀜)

한마음 수련원 개인 하루 피정

· 내용: 묵상 길잡이(삼담 및 고해성사·미사)
· 주제: 찬미와 감사 / 회비: 1만5천원(중식포함)
· 때, 곳: 6월1일(월) 10시~16시 / 031)840-0018

젊은이와 함께 하는 작은 묵주기도 모임

· 때, 곳: 5월29일(금) 19시30분, 성 빈센트 청
소년 열림터 / 문의: 926-3440, 010-8833-8107
· 주최: 성 빈센트 드블 자비의 수녀회 본원(수원)

대치동성당 치유 대피정

· 강사: 허윤석 신부(강의·미사·안수) / 김갑판매
· 때, 곳: 5월25일(일) 10시~17시, 전철 3호선
대치역 2번 출구 / 문의: 010-5710-1884

마리아니스트 영성을 통한 '하느님 헌존제침' 1일 침묵피정

· 대상: 성인(선착순 접수) / 주제: 하느님 헌존
과 감정 침묵(미사준비·필기도구 준비)
· 때, 곳: 6월7일(일) 9시~17시, 마리아니스트 영성
센터(주최) / 2648-7134, 010-3311-7134(회비없음)

9지구 예수성심성월 대피정

· 미사·강사: 김운희 주교, 조영대 신부(중식제공)
· 개별인수: 조영대·김인성 신부 / 010-9299-2179,
010-4762-2445 9지구 성령 봉사회(회비: 3천원)
· 때, 곳: 6월1일(월) 10시~17시30분, 성내동성당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와 미사

· 집전: 유용덕 신부 / 011-245-0121, 016-9282-2422
· 때: 5월25일(월) 13시30분~17시(기도: 박용해)
· 곳: 말씀의 선교 수도회(주최) / 전철 2호선
야현역 2번 출구에서 05번 마을버스 종점

이나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무료 월피정

· 주제: 당신의 사랑으로(강사: 장석홍 신부) / 중식제공
· 때, 곳: 5월29일(금) 10시~16시, 서강대 이나시오
오관 강당(미사있음·개인 물컵지참) / 717-3869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 고해성사, 치유상담, 성시간, 미사, 강의, 기도회
· 때, 곳: 매주(금) 22시, 동성고등학교 강당(전
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867-7900

1주 치유상담, 양형영성체	2주 중개기도,치유기도,안수예절
3주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회	4주 성체거동
5주 가정미사	5월29일(금)/강사: 서정혁 신부

절두산 순교성지 피정

· 사전방문접수(전화접수 불가, 당일접수 불가)
· 문의: 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사무실

월례 피정	주제: 창에 찢린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에 잠겨어 강사: 이명기 수녀(가톨릭대학교 교수) 때: 6월8일(월) 10시~16시(과전미사 포함)
주말 피정	주제: "어서일어나 끝은 거리로 가라" (사도 9,11) 강사: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선교팀 때: 6월21일(일) 10시~17시(과전미사 포함)

여성연합회 월례회 및 참사랑마트 축상식(문의: 778-7543)

· 월례미사: 5월26일(화) 10시,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민병덕 신부) / 축상식: 가톨릭회관 523호

살레시오 수녀회 연피정(문의: 011-560-4658)

· 때, 곳: 6월6일(토) 12시30분~7일(일), 광주 피정
의 집(1박2일) / 대상: 20~30대 여성(회비: 2만원)

사랑의 씨튼 수녀회 부부피정

· 때: 6월13일(토) 16시~14일(일) 점심 / 3672-6136
· 곳: 씨튼영성의 집(논산시 상월면 소재)

14-B(구로)지구 성령 낮 기도회

· 내용: 말씀과 미사 / 문의: 011-9060-7851
· 때, 곳: 6월2일(화) 13시~16시30분, 고척동성
당 소성당 / 주최: 14-B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시립 성동 청소년수련관 해외 봉사캠프

· 베트남 해외봉사캠프(봉사 확인서 발급)
· 대상: 주일학교 중3~대학생 30명(회비: 1백만원)
· 때: 8월6일(목)~12일(수) / 5월29일까지 선착순 접수
· 문의: 2296-4062, 3(접수방법 공지: www.sdyc.or.kr)

교육

성령선교수녀회 젊은이 프로그램

· 주제: '빛내음' 떼제 기도모임 / 010-5730-6322
· 때: 매주(월) 오후 7시30분 / sspskorea.org

수서성당 초보자 기타교실(문의: 017-241-1543)

· 대상: 매주(목) 오후 8시 미사 가능한 분
· 때: 5월28일(목)부터 / cafe.daum.net/cesilguita

평화심리상담소 우리아이 행복지수 높이기

· 내용: 충분한 욕구 충족과 따뜻한 공감으로 아
이의 마음을 행복하게 키워주는 놀이·미술치료
· 접수: 수시접수(전화예약 후 상담) / 775-4831, 2

나자렛 성가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여성부 자격인정)

· 대상: 전문대졸 이상 / 회비: 22만원(교재비 포함)
· 때: 6월10일~8월1일 매주(수) 18시30분~22시30분, 매
주(토) 9시~13시 / 379-4803(계좌: 신한 100-022-727249)
· 곳: 나자렛 성가회 교육원(주최)·종로구 평창동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

· 때, 곳: 6월8일(월)~10일(수) 10시~16시,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시청각 통신성서교육원(주최) / 선착순 100명
· 회비: 5만원(중식·교재비 포함·새로나는 성경공
부 서간편) / 944-0819~0824(uss@pauline.or.kr)

구립 서초유스센터 화 다스리기 캠프 6기

· 대상: 고등학생 30명 / 내용: 청소년기 울컥
하는 마음을 달래는 마음 캠프(회비: 3만원)
· 때, 곳: 6월12일(금) 20시~14일(일) 15시, 청
심 국제 수련원 / 3486-0379(www.scy.or.kr)

좋은 아버지 영성교실 특별과정(하루반, 주간반)

· 하루반: 5월31일(일) 10시~18시(주일미사 있음)
· 주간반: 5월12일~7월7일 매주(화) 19시30분~
21시30분(8주) / 회비: 7만원(하루반)
· 곳: 우아칭 청소년 영성의 집(살레시오 수녀회·전
철 7호선 신공역 4번 출구) / 832-8959, 010-3883-7004

탈리다콰센터 문화강좌 안내

· 쉽고 재미있는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일상의 스
트레스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강좌
· 문의: 742-9471, 3(문의 후 접수) / www.taly.co.kr

탈리다콰 영성강좌 매주(수) 11시 하느님의 사랑을 찾는 희망 여행
생활심리 문화강좌 매주(수) 10시 인간관계를 위한 심리학 이야기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726-0700 / 무료전화상담: 726-0771

성경치유피정	5월28일(목) 9시30분~17시(미리등록 요망) "화(火)를 다스리는 치유피정"(선착순 12명)
감수성 훈련	5월28일~6월25일 매주(목) 10시~17시(5회)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적 민감성 훈련
참자기 찾기 훈련	6월25일(목) 10시~21시 / 28일(일) 10시~17시 자신감, 주제성 찾기, 진실한 관계
개인상담	전문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 문제해결

모집

그라시아스 핸드벨 콰이어 단원 모집

· 때: 매주(월) 연습 / 019-246-9708 서로서
구립 요한 어린이집 교사 모집(미아동성당)

· 대상: 가톨릭 교우로 유경험자 / 983-1146

· 이메일 접수: eugene2273@hanmail.net

청년성서모임 직원 모집(문의: 764-6452)

· 대상: 데이터베이스(SQL), HTML 사용 가능한 분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5월29일까지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youthbible@catholic.or.kr)

· 주소: 종로구 혜화동 90-6 가톨릭회관 126호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지도사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6월12일(금)까지 선착순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능(서초구 반포4동 성의교정 성
의회관 601호 평생교육원 운영팀) / 2258-7738, 7

· 때: 6월15일~8월24일 매주(월) 오전 10시~오후
1시(http://songsim.catholic.ac.kr/~cukcedu/)

미사

삼성동성당 아프리카 선교 후원회(百花爛漫) 월례미사

· 대상: 회원 및 아프리카 선교 후원에 동참할 교우
· 때, 곳: 5월27일(수) 10시, 삼성동성당 / 512-0195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대상: 신우회 회원 및 관심 있는 교우 / 753-0815
· 때, 곳: 5월27일(수) 10시30분, 명동성당 내 소성당

오기선 요셉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교우 / 2299-2296, 011-202-5145
· 집전: 황인국 목사님, 오용진 신부 외 사제단

· 때, 곳: 5월28일(목) 오후 3시, 명동성당 별관

절두산 순교성지 연례회 기도·미사

· 지향: 선종한 사제들, 불쌍한 영혼들, 조상들,
선종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 / 010-7534-1866

· 때: 5월29일(금) 12시(연도)·13시(미사)

몸과 마음에 고등병을 이들을 위한 치유미사

· 지향: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척들, 불의의 사고
로 세상을 떠난 분들,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성수도우예절) / 집전: 남영희 지도신부

· 때, 곳: 5월28일(목) 오후 2시~4시, 새남터성지
· 문의: 711-2507 성모성심 가나안 봉사회

안내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문의: 582-6004, 6012)

· 기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단기보호 입주자 추
가 모집(방문요양·방문목욕 신규사업 실시)

(국내 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 문의: 764-4741~3(www.성가정입양원)
· 주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이태원성당 50주년

· 이태원성당에서는 50주년 기념사 제작을 위
한 자료를 수집함 / 문의: 790-7551

아씨시 세계 젊은이 대회

·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주최: 아씨시의 프란
치스코 전교 수녀회) / 문의: 010-5313-0241

· 때: 7월29일(수)~8월14일(금) / 6월28일까지 접수

동두천 가르멜수도원 후원금 담당자 변경

· 동두천 가르멜수도원 건축후원금을 담당하
였던 관리국장 이정옥 형제가 3월16일(월)자
로 면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후원금 문의:
010-3134-1489 (재)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알기 쉽게 풀이한 새 미사 해설

안문기 지음 | 바오로딸 | 264쪽 | 8천 원
 미사의 참 의미와 가치, 행위의 상징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이다. 예화나 시대 상황, 사건을 들어 미사를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설했다. 감사의 잔치인 미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사의 은총을 충만히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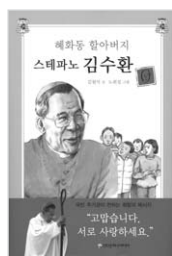
내 안에 숨겨진 보물

김복순 지음 | 김선명 그림 | 성바오로 | 148쪽 | 1만 원
 바다에 사는 은치와 금치라는 물고기의 이야기로 자신이 노닐던 수면 주변의 얇은 바다에서 보다 깊은 바닷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다. 하늘과 물의 일치를 향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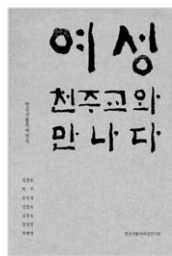
나물할머니의 외눈박이 사랑

이찬우 지음 | 이지출판 | 272쪽 | 1만 원 | 구입문의: 743-7661
 이찬우 신부가 지난 40여 년간 틈틈이 기록해 두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 엮은 사모곡이다. 가톨릭 사제의 눈으로 바라본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외눈박이 사랑을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지 성찰케 한다.



혜화동 할아버지 스테파노 김수환

김원석 글 | 노희성 그림 | 은하수미디어 | 255쪽 | 9천8백 원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가르침을 남긴 혜화동 할아버지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정신을 담은 책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기 쉽도록 추기경의 일생을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으며, 중간중간에 삽화를 넣어 더 진한 감동을 준다. / 구입문의: 449-2701



여성, 천주교와 만나다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지음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찬 | 352쪽 | 1만8천 원 | 구입문의: 756-1691
 그동안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은 역사에서 가려져 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이 책에서는 천주교 수용 이후 이어져 온 교회여성의 활동상을 시대별로 엮어내고, 실천할 바도 제시한다.



수험생을 위한 목주의 9일 기도

김계숙 지음 | 김옥순 그림 | 바오로딸 | 76쪽 | 4천5백 원(대), 3천5백 원(소)
 수험생과 수험생을 둔 부모들을 위해 마련한 목주의 9일 기도이다. 언제, 어디서든 목주기도를 바치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수험생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구하도록 도와준다.

오페라 '대한국인 안중근'

· 입장권: VIP석 15만 원, R석 10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C석 2만 원 | 공연시간: 목-금 19시30분 / 토-일 15시30분·19시30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대한국인 안중근'이 6월4일(목)~7일(일), 올림픽홀에서 있다. 평화의 사도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전달한다. 정상급 성악가들과 100명의 연합 합창단,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다이내믹한 음향을 감상할 수 있다. / 예매 및 문의: 555-2326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 후 예매 및 현장 구매시 5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

· 입장권: 일반 3만 원, 대학생 2만5천 원, 청소년 1만5천 원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6시30분, 19시30분 / 일 15시, 18시



평범한 사람들의 애뜻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가 6월까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공연한다. 만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으로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원작의 구성을 살리고 만화에서는 볼 수 없는 아이디어들과 연극적인 공간활용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만화를 만날 수 있다. / 예매 및 문의: 335-3049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가족마술극 '매직도깨비'

· 입장권: 전석 1만5천 원 | 예매 및 문의: 3676-0282
 · 공연시간: 화-금 15시 / 토-일·공휴일 13시



EQ와 IQ발달에 좋은 가족마술극 '매직 도깨비'가 6월까지 대학로 상상블루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프로 마술사 두 명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로 마술을 선보인다.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마술극으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사카테 요지 페스티벌 '다락방'

· 입장권: 전석 2만 원 | 예매 및 문의: 889-3561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5시, 19시 / 일 16시



일본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사카테 요지'의 작품을 선보이는 '사카테 요지 페스티벌'의 첫 번째 작품 '다락방'이 6월8일(월)~28일(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은둔형 외톨이를 테마로 한 정교하고 치밀한 작품으로 다락방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람들 각각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처럼 진행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